



# Pusan National University

범동해(일본해)학술포럼 참석자 여러분들께,

안녕하십니까?

제 3회 범동해(일본해)학술포럼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참석자 여러분들께 멀리 대한민국 부산에서 안부 전합니다. 이 포럼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열릴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교토현 지사님께도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올립니다.

세계는 지금 하나의 지구촌으로 묶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망의 발달은 인류를 공간과 시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개인과 사회를 더욱 큰 관계의 그물망 속으로 밀어 넣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해(일본해)를 둘러싼 지역도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이제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의 인적, 경제적, 문화적 교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공동체를 자유·평등·발전이라는 보편적 가치 위에 건설하려면 지역 교육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산대학교는 리추메이칸대학, 동경대학, 오사카대학, 큐슈대학, 요코하마 공과대학 등과 교류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대학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대학이 속한 부산의 지역사회가 동해(일본해)를 사이에 두고 형성되고 있는 이 새로운 경제적, 문화적 공동체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인류 문화의 발전에 동아시아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이때, 동해(일본해)를 둘러싼 지역의 시민들이 모여 지역발전과 교류증대를 위한 방안들을 논의한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있는 일입니다. 부디 오늘의 모임이 건설적인 토론과 우의 증진의 자리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참석하지 못한 아쉬움의 마음을 다시한번 전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 11월 20일

부산대학교 총장  
윤수인 올림

「環日本海アカデミック・フォーラム全体交流会議」参加者の皆様こんにちは。私は、「第3回環日本海アカデミック・フォーラム全体交流会議」の開催にあたりお祝いを申し上げますとともに、ご列席の皆様、遠く韓国の釜山からご挨拶申し上げます。また、このフォーラムが毎年このように続けて開催されるようにご支援下さっている京都府の知事にも、感謝の言葉を申し上げたいと思います。

世界は今、一つのビレッジとして動いております。特に情報通信網の発達人類を空間と時間の束縛より解放し、個人と社会はより大きな関係のネットワークの中に属しております。このような流れの一つとして、環日本海の国と地域は、過去の不幸な歴史を克服し、今は一つの新しい共同体を形成しつつあります。この地域での人的、経済的、文化的交流が日々増加しているという事実が、これを証明しております。

この新しい共同体を自由、平等、発展という不変的な価値の上に建設しようとすれば、地域教育機関の積極的な参加が必要だと思われまます。我が釜山大学では、立命館大学、東京大学、大阪大学、九州大学、横浜国立大学などと交流しており、今後もこの諸大学との交流と協力を積極的に強化していくつもりです。そしてそのみならず、我が大学が属している釜山の地域社会が、環日本海を挟み形成しているこの新しい経済的文化的共同体に積極的に参加できるように、社会的な役割も果たすつもりであります。

人類文化の発展に東アジアの役割が増大している今、環日本海の国と地域の市民たちが集まり、地域発展と交流増大のための法策を話し合うことは大変意味深いことだと思います。本日の集まりが建設的な討論と友好増進の場になることを願いながら、この場に参加できないこの残念な気持ちを、改めて皆様にお伝えするところ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1998年11月20日 釜山大学総長 尹 洙仁